

CMAI Conference on Doing Business with India

In association with IKBPF and with support of KES, scheduled to be held during KES, on 9th October 2012 at 3.00 PM to 5.00 PM at KINTEX, Conference Room # 207 2nd floor, Seoul Korea. All are welcome. No participation fees.

“인도시장 꿈꾸는 한국 기업들에 날개 달아 들려요”

이날 행사에 메인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CMAI의 고얄 대표는 이번 회의를 열게 된 것에 대해 양국간의 IT발전에 긍정적 결과를 끌어낼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한국은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도와 협력 하에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20~30년 100억 달러이상의 한-인도 간 무역규모를 예상한다”며 “특히 한국은 IT와 소프트웨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론 자동차부품이 큰 시장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9일 고얄 대표는 한국기업들이 인도시장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을지 알리고, 한-인도 비즈니스 정책 포럼 대표 라빈더 싱 박사 역시 인도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도 비즈니스에 관심있는 국내외 많은 기업인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인들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날 회의에선 고얄 대표와 싱 박사에게 인도 비즈니스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직접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Q&A시간’은 물론 인도 전통 음악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고얄 대표는 “CMAI협의회는 10여년 이상 인도와 한국 간 비즈니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이미 한국과 인도 간 학술과 기술적으로 연구기관들간의 협력과 교류가 많다. 이번 회의 역시 CMAI가 한국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한국전자전(KES)이 인도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IT, 소프트웨어 모바일기기산업에 큰 시장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비즈니스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인도 통신 멀티미디어 IT 협회(CMAI)’의 NK 고얄 대표가 8일 시티신문을 내방, 강조한 말이다.

인도 비즈니스 국제 컨퍼런스는 국내 최대 전자박람회인 KES(9~12일 고양 킨텍스 개최)가 후원하는 국제회의다.

이번 컨퍼런스는 9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킨텍스 207호 컨퍼런스룸에서 KES는 물론 시티신문, 인도-한국 비즈니스·정책 포럼(IKBPF), 한국전력협회 등 후원으로 열린다.

인도 비즈니스 국제컨퍼런스
내일 오후 킨텍스에서 열려

전자산업국 견인 ‘한국전자전’
IT 등 인도의 큰시장성 적극 후원

‘인도 CMAI’ 고얄 대표
“韓-印 성공비즈니스 모델 제시...
긍정적 결과 끌어낼 것”

것”이라며, “인도 전통 공연을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이라고 소개했다.

CMAI는 국제 정보 통신 기술 협회로 현재 56여 개의 국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도 내 10만 여 회원들과 전 세계 5개 국제 사무소, 뉴델리 본부를 포함해 6개 사무소를 인도 현지에 두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국내 우수 정보통신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MAI 홈페이지(www.cmai.asia, www.cmaievents.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규 기자 bk@citydaily.co.kr